

리서비스가 4.0% 이다. 베이비 부모들은 희망서비스에 건강검진을 많이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증진행위(식이, 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에 대한 경우 45.4%로 전반적인 질병 예방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활동에 관해서는 베이비 부모들의 42.3%가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 특히 60~63년생이 50~59년생보다 취미생활에 대한 응답이 더 높다. 베이비 붐 세대의 69.4%는 현재의 삶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7%는 노후의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여가산업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자녀 교육과 은퇴 후 재교육에 관해서는 베이비 부모의 소비항목별 지출 비중 중 15%가 교육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료품 소비에 13%, 음식·숙박비에 13%, 교통비에 13%, 주거비에 10%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베이비 부모의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으로 높은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지출에 따른 결과이다. 자녀사교육비는 베이비 부모의 노후소득준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자녀양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의 영향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지연된다면 베이비 부모의 소비시장 또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설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43.9%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며,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단, 64.1%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에서의 제공 또는 무료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 상업적 정보서비스 제공업의 활성화 여건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노후 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베이비 부모가 부모를 위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9.2%,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2.4%, 병원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2.2%이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본인이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로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6.1%, 배우자에게 의존하겠다는 응답이 28.9%, 의료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1.1%,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해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노후자금, 일자리, 건강관리 및 요양서비스에서부터 여가와 노후설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니즈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제도운영 등으로 대응할 경우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등 새로운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베이붐 세대의 퇴직과 은퇴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되,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 붐세대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시장수요를 고려한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 등 시장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2.

고령화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정책적 후순위 등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2006년 12월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05.8)하여 산업화지원 기반을 구축하였고, 종합체험관서비스 사업을 통한 시장 인지도 확산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부산)를 구축('05.9~'10.8, 국비 76억 원)하였다. 수도권(성남), 호남권(광주), 대경권(대구), 영남권(부산) 등 권역별 '고령친화제품·종합서비스 체험관' 구축을 통한 시장인지도 확산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3	■ ‘ ’ .
2004	■ ‘ ’ ,
2005	■ 8 19 ■ 2005 4 ‘ . ’ , ■ ‘()’ , ■ ‘ ’ , ■ ‘ ’ (2008.3) ■ ■ () 「 ’ 」 (2005.9~2010.8) - , ,
2006	■ 「 1 5 (2006~2010)」 ■ ‘ ‘ ‘ , ■ (2006~2010)
2007	■ 2008
2008	■ 「 DB , 」 ■ ■ 「 」 ■ 7
2009	■ ■
2010	■ U-health, Wellness, U-Silver ■
2011	■ 2(2011~2015)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08.7)을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복지용품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는데, 2008.7~2010년 복지용구 보험급여 1,526억 원('08년 132억 원, '09년 673억 원, '10년 721억 원)이다. 최근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헬스(u-Health) 신산업창출 전략 수립('10.5)한 바 있다. 유메디컬(u-Medical)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0~'12년, 국비125억 원)하고 있다.

업계현황을 살펴보면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864개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에 참여, 업체 평균 매출액은 15.4억 원(고령친화용품 산업실태조사, '09.8)으로 업체 증가율은 2006년 376개에서 2007년 415개로 10.4%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866개로 108.7% 증가하였다.

1)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 해당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계획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이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은 거의 제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고령화는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그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행 기간 동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개발 및 지원 부족으로 산업 육성 기반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수요자 중심의 제품 개발이 미흡하고,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들이 인식이 부족하여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고령친화산업 정책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추진되어온 의료기기 등의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의 범주로 분류됨에 따라 기기산업과 정보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제2차 새로마지 플랜에는 식품산업이 추가 된 것 외에는 그 이전 단계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 및 ‘14대 고령친화산업 총 34개 고령친화 전략품목’의 관점에서 보면 불균형적인 현상이다. ‘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에는 일자리 사업,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 생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 제공 등의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등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아닌 ‘복지’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개념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정책의 범주 또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 정책은 ‘제품’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을 의미한다(이소정 외, 2010).

2)

고령화에 따른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의 제한점과 문제점은 크게,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고령친화제품과 기기 및 서비스 관련된 정부나 민간의 체계적인 R&D 추진전략 미흡 및 투자 부족,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부족,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미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강력한 재취업 의사와 현실적 경제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 은퇴 직후 시장니즈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즉 중고령전문인력파견업, 재취업교육서비스,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건강관리(항노화산업 포함)산업 등의 활성화 제약요인이 되는 법·제도상의 개선 추진 필요하다.

둘째, 고령친화제품과 기기 및 서비스 관련된 정부나 민간의 체계적인 R&D 추진 전략이 미흡하고, 신성장동력 또는 융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 중이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자본금 10억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자체 R&D 및 연구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정부 기술개발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고령친화산업체중 10억 미만 업체가 95%이며,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경우가 55%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R&D 예산 중 고령친화제품 지원액이 33.6억 원(전체 4.1조원의 0.0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고가·고기능 고령친화제품 대부분 스웨덴 또는 일본산이며, 저가·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고령친화용품 매출액 중 수입품이 3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시장 연평균 성장률('05~'08년) 27.6%로, 수입시장 연평균 성장률인 198.8%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화시대의 본격화에 대비한 기회선점과 글로벌 시장 지향의 성장성 있는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노력이 부족하다.

셋째, 비교적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기존제품과 IT 및 정보서비스와의 융합 등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융합제품, 서비스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유헬스(u-Health) 산업의 경우 제조·개발(HW·SW), 상품화(임상, 인허가, 보험수가개발 등), 서비스(운동, 식이, 영양)분야 등에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 일부 유헬스(u-Health)의 경우 다기능적 복합교육시스템에 의한 u-Healthcare 인적자원개발사업(교과부, '07~'09, 30억 원) 등의 관련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주로 기술인력 양성에만 치우쳐 종합적인 인력양성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은 대부분의 제품과 기기에 있어 원천기술 및 관련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부재로 경쟁력확보가 쉽지 않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확보가 곤란하다. 특히 관련 중소기업의 영세성, 대기업 시장참여 유인이 낮아 민간 주도의 산업발전 모멘텀 확보가 어려워 산업발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은 현재 장기요양 관련용품 위주의 사업단체, 일부 대학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R&D 시스템, 실버제품체험관 중심의 산업발전기반 조성 차원의 공공기관만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유인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

산업의 국내 표준 및 해외 표준 정립 및 인증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 일상 생활용품에서부터 유헬스(u-Healt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기술로 구성되는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일부용품과 기기 및 서비스의 연계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법 등의 다양한 관련 법·제도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정책 및 인프라 측면에서 기기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관련제도 및 인프라 구축, 표준화 구축 정도가 높지 않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관련 법 제정, 관련 규제개혁 등이 지연되어, 현재는 신성장동력 과제의 일부로 추진하거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³⁹⁾.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 구축 미흡하며, 일부 신성장동력 과제로 추진되거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중으로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산업기초 통계 등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현황 파악과 정책수립에 애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06.12)되었으나,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법에 따른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

기존 연구(2005, 2006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써 요양 관련 기기 및 용품, 주택, 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등을 지

39) 인포피아, 엘바이오는 통신지원 혈당, 혈압계를 개발했으나 통신사, 홈네트워크사별 다른 통신방식을 적용해야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중복 허가(KFDA)로 출시 지연되고 있음.

칭한다.

기존 연구가 이루어진 2005,6년 당시 고령친화산업은 2007~8년 태동되어 2012년경 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고령자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전국민연금제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한편, 2012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현재 14대 매출액기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2.8원 규모이나, 2010년에는 약43.9조원 규모에 이른 후 그 10년후인 2020년에는 약 148.6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2010년 기간 중에서는 약 16.6%, 2010년-2020년 기간 중에는 14.6%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일 것으로 전망 2020년에는 모태산업⁴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11년 현재 고령친화산업은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요양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당시 전망과는 달리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비록 2006년 고령친화산업 육성법 제정 등의 고령친화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발전 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 정보기기, 금융, 주택 등 여타 유망한 고령친화산업분야의 경우 각종 규제와 법제도상의 미비로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부진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유형과 시장규모는 2005,6년 당시 예비고령자로 간주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이 이전세대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당시 베이비 붐 세대는 '향후 50년간 인구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일한 연령군단으로' 약 1,000만명 규모의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으로 간주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축적하고,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노후 공적 소득보장이 더해져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실제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대 추정된 것으

40) 여기서 모태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주로 고령자, 예비고령자(베이비붐세대가 여기에 해당) 및 주수발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보았기기에 그 수요에 제한이 없는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칭(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로 평가된다.

3.

고령친화산업은 정부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와 실제적인 사업이 발달해오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시작되었던 일본이 경우도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품질 중시의 질적 성숙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제조업 보다는 주거산업, 금융산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현재 전체 소비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은 2만 여개의 실버타운과 7천여 개의 노인전문 병원이 있으며 80%이상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수봉 외, 2009)

유럽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해왔다. 최근에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네트워크(the Silver Economy Network of European Regions(SEN@ER))를 구축하여 유럽 지역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독일 본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17, 18일에 ‘제1차 유럽실버경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독일 북라인베스트팔리아(North Rhine-Westphalia) 정부가 추진한 행사로 약 600명이 참가하여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차 유럽실버경제회의에서는 실버경제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특히 독립생활(주거, 건축, 판매제, 텔레커뮤니케이션), 관광, 스포츠, 문화, 재가서비스 및 쇼핑, 건강과 웰빙, 재무서비스, 지역간 네트워킹 부문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⁴¹⁾. 이후 2006년에는 제2차 유럽실버경제회의가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에서 열렸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11월 스페인

41) Bonn 유럽실버경제선언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silvereconomy-europe.org).

안달루시아(Andalucia)에서 ‘유럽을 움직이는 실버세대(The Silver Generation Driving Europe)’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4차 유럽실버경제회의는 2010년 1월 프랑스의 리모주(Limoges)에서 ‘지역실버경제와 고령사회 전략. 우수 사례’를 주제로 열렸다. 유럽실버경제네트워크는 고령사회의 위기를 위협이 아닌 유럽 지역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이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⁴²⁾ 유럽실버경제네트워크는 지방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파트너가 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이소정 외, 2010).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개한 내용들은 ISO/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안에 의거 ISO/TMB 산하 특별작업반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배려한 규격 개발지침(ISO·IEC 가이드 71)이 제정되었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사항을 제품, 서비스, 시설 등에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각능력, 신체능력, 인지능력 및 알리지 등을 고려하여 정보표시, 포장용기, 소재, 설치, 사용자 조작성, 정비보관 폐기, 구축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장애인을 배려하는 국제표준화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용품의 일본공업표준(JIS)은 일본복지용구생활지원용구협회(JASPA) 혹은

42) SEN@ER의 프로젝트

- SENIOR ENTERPRISE INITIATIVE
- INDEPENDENT - ICT Enabled Service Integ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The project with SEN@ER participation submitted to the CIP programme is a CIP ICT PSP Pilot Type B proposal addressed to ICT PSP Objective identifier: 1.3 ICT for ageing well / independent living.
- eSESH - Saving Energy in Social Housing with ICT
- CULTUREMAP - Study on the mapping and evaluating of existing platforms (websites) within the cultural sector aimed at stimulating debate and cross border exchange of matters concerning European culture
- "COMMONWELL - Common Platform Services for Ageing Well in Europe
- AAMEE - Active Ageing of Migrant Elders across Europe
- SOPRANO - Service Oriented PRogrammable smArt enviroNments for Older Europeans
- MobilAlarm - a location-independent emergency service

(사)일본재활의학회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JASPA를 원안 작성단체로 하여 제정된 고령친화용품 관련 JIS표준은 수동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동·이승 지원용 리프트, 유도용 블록의 모양, 단차해소기, 주택용 전동 개호용 침대의 6 건이 제정되어 있다. (사)일본재활의학회를 원안 작성 단체로 하여 제정된 고령친화용품 관련 JSI 표준은 복지관련기기용어(의자·장구 부문), 복지관련기기용어(재활기기부문), 수노기, 스토마(Stoma)용품에 관한 용어, 스토마용품의 시험방법의 5 건이 제정되어 있다. 그 외로는 (재)일본규격협회를 중심으로 제정된 복지용구 관련 JIS 표준 1건(전동 휠체어 전자 양립성 요건 및 시험방법)이 있으며, 일본의 기타 ISO/TC173 과 관련한 JIS 규격은 총 3건이다. (재)일본제품안전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인증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SG(Safety goods)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2007년 7월 기준으로 129 종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복지용구는 지팡이, 보행차(롤레이터 및 워킹테이블), 수동휠체어, 간이허리걸침변좌, 이동식변좌, 목욕의자, 전동개호침대, 전동기립보조의자의 9 종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43)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개발 및 그와 관련된 산업이 다양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QoLT센터(생활품질기술연구센터)는 케너기멜런 대학에 기반을 두고, 프츠버그대학교를 핵심파트너로 하여 노인, 장애인, 전문의들과 협력하여 노인을 위한 휴대용 건강체크장치에서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능형 홈 시스템을 목표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산업계와는 로봇공학, 의료장비, 가정제품,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8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u-Japan 이라는 명칭아래 유니쿼터스 IT를 활용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고도 에이전트 기술개

43) 관련 내용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유니쿼터스사회 리더」에 기초해있음.

발, 이용자 인터페이스 향상, 정보접근성 확보, 고령자·장애인의 IT이용 지원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하여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나가 정보 접근이 원활한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의 Telecare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정내에서 의료나 사회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은퇴 후에도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게 되어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서비스에는 응급체계(알람서비스 전화), 탐지기/모니터(활동, 화재, 가스), 라이프스타일 모니터링,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의 공동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AAL(Ambient Assisted Living)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령자에게 IT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모니터링, 안전 및 보안, 응급시스템, 사회참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EU 회원국간의 공동 프로젝트로 2007~2013년의 7년간 약 3억5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의료기기, 노인기술, 건강, 스마트홈, 스마트 의료, 로봇,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 실용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관련산업의 발전여건은 현재의 의료수준, 의료기기기술, IT기술, 웰빙(Well-being)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적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트렌드의 도래는 세계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한 IT기술력 및 의료수준은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

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후 경제활동과 건강상태, 노후준비 자금사정과 실질적인 니즈와 수요패턴에 부응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대응은 민간 산업 영역임과 동시에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측면이 결합되어 있어 공공복지 제공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와 본격 고령화시기로 나누어 접근해가도록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실질적인 니즈(Needs)와 이에 부응한 시장형성의 속도와 규모가 크게 다를 것이므로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 활성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와 본격 고령화시기로 나누어 유망산업과 정책적 관심 산업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이들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 산업 구조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일부 고령친화제품의 경우 해외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유망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R&D 기획과 이를 통한 선제적 기술 확보와 서비스개발이 중요하다.

넷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체계적 장기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관련 중장기적 과제로는 국내시장의 협소 등의 발전제약 요인을 고려, 글로벌차원에서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유헬스(u-Health)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IT 및 BT기반 기술의 비교우위와 베이비붐의 고령화로 인해 형성되는 국내 시장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삼는 전략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부품소재 및 장비 업체가 핵심적 부문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이 중요하다.

산업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중고령 전문 인력 파견업	은퇴 후에도 해당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파견업무 희망함	<미국> 약 \$800억 <일본> 약\$400억 추산.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한번도 2%대를 넘은 적이 없으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점유율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장점이나 정규직과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	<유럽> 1990년대 중장년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이전과 자리회전 모델 실시 <일본> 대표적 파견업체인 '파소나' 2,369억 엔 매출('08년)
재취업 관련 교육 서비스 산업	중고령층 퇴직자의 재취업 관련 서비스를 원함	많은 선진국에서 실직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등 정부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제공함	복지적 측면이 강해 국가가 실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뉴딜 50플러스'라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제도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함
노후 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 자산 관리 자문업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낌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싶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낌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유럽>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관리 자문업이 한국에 비해 많이 발달한 상황임	2020년: 185,241억 원	소유자산의 불균형이 나타남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함 (낮은 금융자산 + 높은 실물자산) 부동산을 통한 소득창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음	<미국> 은행, 증권사, 뮤추얼 펀드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및 Life cycle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며 노후에 대비함

건강 관리 서비 스 산 업	고령화로 인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 프로그램의 필요성 느낌	<미국> 2010년: \$57억 2015년: \$33억	※건강관리 서비스법」 제정 시 시장규모: 약2조원(201 4년) 3만8천명 일자리 창출 예상됨	‘건강주의군’ 에게 영양, 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	<일본> 2008년 정부 주도로 시작, 현재 3042개 병원, 의원과 139개 전문관리회사가 보건지도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적극 도움
윌 니스 (u-w ellne ss) 산 업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싶어함	2011년: \$1,071억 2013년: \$1,487억	2011년: 2,100억 원 2013년: 1조6,814억 원	국내업계의 관심은 증가추세이 나 성공사례가 없어 시장창출 지연됨	나이키와 애플의 NIKE+iPOD Sport Kit’
항노 화 산업	자신의 외모, Well-being,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비교적 관심이 많음 치료목적의 항노화 제품뿐만 아니라, 외모관리 서비스로서의 항노화 서비스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	<미국, 유럽, 일본> 매년8.9%급 성장할것으 로예상됨 2008년: \$1,612억 2010년: \$1,895억 2015년: \$2,919억	2020년: 9,000억 원 2020년: 27조원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임 항노화 식품의 경우(세계시 장의 0.5%차지) 산업의 발전 미약함	<미국, 유럽, 일본> 항노화서비스가 예방, 진단, 관리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발전 <프랑스, 독일, 일본> 일반화 되어있는 수(水)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함
여가 및 관광 산업	은퇴 후 고령자를 위한 관광레저·스포츠 산업	OECD국가 들은 GDP의 3%~9%를 여가비용으 로 사용	2006년: 총 여가산업규 모 71조 3천여억 원	여가용품, 여가공간, 여가서비스 등 여가활동에 대응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미국의 ‘엘더호스텔’은 55세 이상 노인에게 교육과 여행서비스를 제공, 유스호스텔의 고령자판
실버 주거	중산층도 고려한 고령자 주택 등	중장년층의 급격한	2010년: 26,778억원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일본> 고령자용 임대

지 및 주택 등 쾌적 한 생활 공간 관련 산업	다양한 고령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느낌	증가는 임대보다는 자가 소유주택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고령자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임	2020년: 75,045억 원 ※주택개조 시장 2010년: 478억 원 2020년: 2,386억 원 ※실비(임대) 고령자 주택공급시 장 2010년: 9,840억 원 2020년: 8,933억 원	자산상황에 따라 잠재수요의 폭이 넓어 비즈니스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시장의 미성숙으로 고령친화주 택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함	주택에서 주택안전Repair 서비스, 사고방지 Total서비스에 이르는 폭넓은 시장이 형성되었음 <미국, 일본>민간이 고령친화주택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유헬 스 (u-H ealth) 서비 스 산업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베이비 부머들은 의료비절감의 필요성을 느낌	2007년: \$1,058억 2009년: \$1,434억 2011년: \$1,893억 2013년: \$2,540억 연평균 15.7% 증가 ※홈&모바일 헬스케어시 장 2010년: \$57억 2015년: \$336억	※만성질환 자의 u-Health 시장규모 2012년 고혈압 환자 : 6,926억 원 2012년 당뇨환자 : 2,741억 원 총: 약 2조 원(추정치)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여, 표준화 및 법· 제도가 미진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수준임. u-Health의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 임.	<미국> 만성질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홈&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한된 예산을 받는 노인 보호시설에 널리 보급함
의료 기기 산업(노인 생활 편의 기기 중심) 산업	영상진단, 치과용, 의료용 소모품 이외도 노인생활 편의성 중심의 기기수요 증대	2009년: \$2,215억 2012년: \$2,660억	2009년: 3.6조 원 연평균 13% 성장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수 준	<EU> 의료기기 S/W검증 의무화('10.10) <미국> IEC의 강화된 성능심사기준 적용 예정('12.6 시행)

건강 기능 식품 산업	고령화로 인한 생체기능 저하를 막고 질병발생 위험을 감소하며 건강유지육구 크게 확대	2008년: \$2,798억 연평균 8.2%성장	2010년: 약 2조 원 연평균 10%이상 성장률	국내 건강기능식 품 시장은 초기 성숙기로 접어들었음	<미국> 1994년 건강기능식품 건강 및 교육법 제정으로 국가지원정책과 의회의 특별예산 지원
노인 장기 요양 관련 시설, 용품 및 기기, 서비 스 산업	급속한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에도 건강하며,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증가함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함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이라는 가격적인 요소 이외에도 높은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도 고려함	중국,인도 등의 고령화가 진행 될 경우, 거대규모의 고령친화제 품시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 됨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비율을 65세 이상 노인의 14.8%로 잡을 경우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명 (추정치)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시장규모 2010년: 4조 9천 억 원 2020년: 9조3,661억 원 ※시설요양 서비스 2010년: 7,006억 원 2020년: 42,293억 원 ※재가요양 서비스 2010년: 12,774억 원 2020년: 80,887억 원	고령친화용 품 제조·유통 하는 기업의 평균 자본금이 1억 300만원에 불과할 만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었음 실버용품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생산 및 유통체계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부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재활보조기 구 및 노인복지용 품이 혼동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이 필요함	<영국> 커뮤니티케어법을 통해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로서 확립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 중고령 친화산업이 3배 이상 성장함. <일본> 고령친화제품 대여, 가정도우미서비스 시설 등 의료서비스 업체가 활성화 되어있음 시설요양보다는 재가요양을 장려함 <서유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재정조달과는 무관하게 나타남

1)

고령친화직업과 일자리를 겨냥,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능력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실제 현장 맞춤형 또는 기업니즈에 부합한 재취업과 연계하는 인력과 전업의 활성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에 대한 소비선호에 부응한 민간교육기관의 활성화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중고령인력과전업의 경우 중고령과전업 관련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확대, 근로자와 전사업의 허가조건 완화 등의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재취업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교육·복지·고용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안 조정 및 부처 간 분담 및 연계차원에서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교육훈련촉진법 등) 및 부처 간 업무조정 또는 교육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와 추진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중·고령자 재취업 교육과 관련된 주요 관련법인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평생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인복지법 중 중·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 시설 관련 규정이 전부이며(노인복지법제36조1항 3호), 동 법에서 노인교육시설은 여가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중·고령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평생교육법에는 중·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조항 없다.

건강관리서비스와 금융자산 관련 자문 민간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후 건강관리 및 금융자산,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에 부응한 시장형성을 고려, 이들 산업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요양 및 질병치료 수요와 정부의 공적 지원 부담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민간 서비스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추진이 요구되며⁴⁴⁾, 항노화 산업의 경우 수(水)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기존 건강보험의 확대적용 관련 제도개선 검토,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운용, 신탁업무, 자산종합관리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시스템 형식으로 전

44)

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버주거지 및 주택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족 환경 등의 특성 고려한 유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 및 유헬스(u-Health) 산업의 장기 발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선점의 기회가 주요 선진국(미국과 일본)에서 공통된 현상인 만큼, 협소한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와 유헬스(u-Health) 산업의 성장동력화 차원의 장기발전 전략과 발전기반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고령친화기기, 정보 분야는 전 세계 고령자들의 공통 수요인 건강한 삶과 웰빙(Well-being)이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주요 부문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시장에서의 출시 실적누적을 통해 향후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이 가능한 부문이다. 그러나 현재 신성장동력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와 유헬스(u-Health) 산업의 육성발전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들 산업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으로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및 유헬스(u-Health) 산업 활성화 차원의 의료법 개정⁴⁵⁾과 함께, 대학병원 임상·개발 및 개원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원격진료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글로벌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R&D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후와 본격 고령화시기의 실질적인 니즈와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시 필요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핵심 SW의 선제적 개발 R&D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치료재료, IT융합기기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여 국산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유웰니스(u-Wellness) 관련 운동기록 평가·운동통합운영 SW, 영양분석관리 SW, 건

45)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원격의료 우선 허용 후 성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개선

강평가·분석 알고리즘 SW등 핵심 SW기술에 대한 R&D 확대 및 상용화 SW기술 R&D 강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및 급여지급 범위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요양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이 분야의 활발한 기업 양산과 함께 단가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질의 저가제품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 시장 확대의 가능성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제품 중 고령친화제품을 급여대상 복지용구에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시장 선점의 기회도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3)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고령친화산업과 베이비붐 세대 관련 유망산업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기업계수요, 기술개발 수준,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고령친화산업 및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의 인력수급 기초조사 및 인력수급현황,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한 인력양성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고령친화산업분야 필요 인력양성과 관련, 기존의 지역별 TP 또는 기업의 연구센터 설치 및 설비구매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양정보다는, 대학과 중소기업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프로젝트와 신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조사와 통계기반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 위주로 전환해가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분야의 고령친화산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관련제품과 서비스분야의 혁신적 창업활성화,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서비스 니즈와 수요특성, 글로벌시장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하여 현재의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제 국내외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수요, 고령친화산업 분야 기업의 진출의사, 장애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일부 출시 중이거나 출시예정인 고령친화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시장 조성차원의 시범사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⁴⁶⁾ 확대 등 조기 시장조성 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출시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고령친화의약품 및 용품,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유효성 평가체계 구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화, 최저품질 기준 마련 등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유헬스(u-Health) 산업과 관련해서는 표준화·인증체계 확립 및 유효성평가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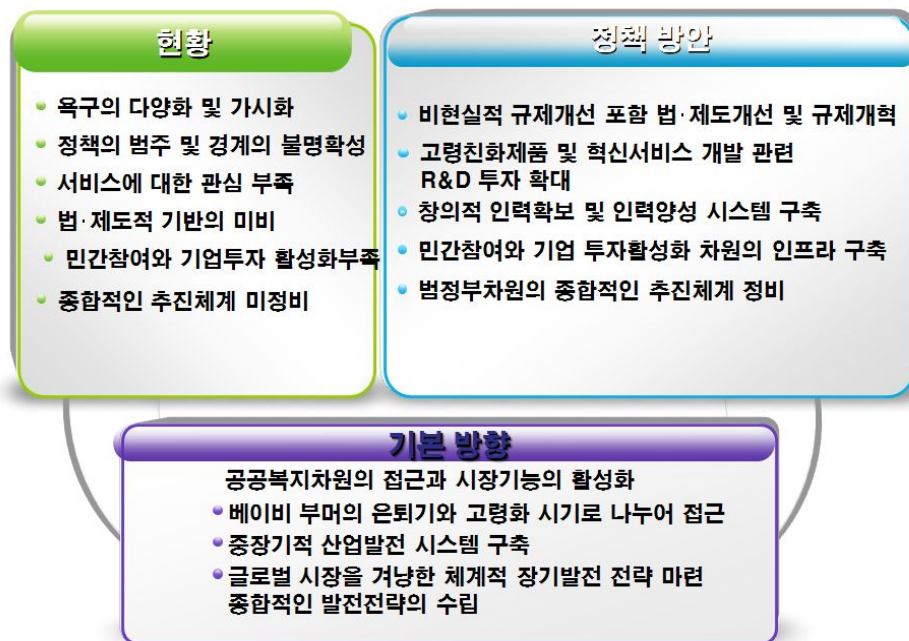
일부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산업은 기업 간 연계와 공동 시장조사와 신제품 및 서비스의 공동개발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업계 단체 및 연구기관 지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방지 관심증가와 함께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노화 산업은 항노화 관련기업의 클러스터, 항노화 센터, 노인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을 통해 항노화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수립 및 추진이 중요하다. 성장동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령친화산업(베이비 붐 세대 포함)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분야별 발전시책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사전에 수립해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 전략계획 수립 부처와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6) 복지부가 2010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추진 중(총 6개 지자체 시행, 2,200여 명에 바우처 제공)

고령친화산업 관련 통계를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은 분야별 통계 관련기관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정보 및 통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담당부처의 실행체계와 함께,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상황 점검, 각 부처 쟁점사항 및 이견조율 및 고령친화산업 발전기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 모니터링 실행 거버넌스 마련을 검토하도록 한다⁴⁷⁾.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7) (예시) 총리실 산하(가칭)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R&D 과제 발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각 부처 추진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고령친화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친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추가반영(발전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재원확보 및 배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





본 연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한 베이비 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을 구성하고 매월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자료를 재분석 하거나 필요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출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도출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베이비 부머의 양적 규모와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가 요구된다. 공공이나 민간의 참여만으로는 베이비 부머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세대 노인과는 다른 특징과 욕구를 갖는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의 특성을 반영된 특화된 서비스와 정책 개발과 동시에 정책의 기본기조의 변화 즉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 정책에서 전제하였던 평생고용, 전통적인 성역할분담, 기본욕구의 충족 중시 등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제도는 별개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서는 안되며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참여행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주거행태 또한 노후소득의 충분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정책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베이비 부머의 개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들이 적절한 노후를 설계하고 향유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요구된 노후설계 서비스와 고령친화산업 영역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베이비 부머가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연장과 정년보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전진적 퇴직제도 적용,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고령친화성 제고, 자영업 지속성 제고 및 창업지원 및 베이비 부머 개인 차원의 노력 경주가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다양한 인식과 동기에 대응한 맞춤형 자원봉사활성화 및 여가활동 활성화 홍보전략과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 둘째 다양한 특성에 대응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셋째 자원봉사관련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 넷째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여가인식의 강화, 여섯째 여가활동 비용 부담 완화, 일곱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이다.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구체화, 퇴직금의 노후소득으로의 활용도 제고,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축소,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적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강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계획의 구체화, 건강증진과 예방이 통합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구축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정책방안은 베이비 부머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정책공백기간인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활성화하고, 주택의 활용방안 다양화하며 주택연금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베이비 부머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노후설계를 실시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노후설계 콘텐츠 개발,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전 국민의 노후설계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 주체별 합리적 역할분담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를 위해 특화된 노후설계서비스 개발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라 활성화 될 것으로 예견되는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가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구현될 때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전략의 효과성이 향상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bottom-up	

				R&D

--	--



- 강 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20), pp.95-116.
- 강병구, 윤명수(2003). 근로소득의 불평등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경제발전연구, 9(1), pp.155-175.
- 강병창, 박병현(2010). 중고령여성가구주의 연령특성별 빈곤 및 저소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0), pp.1-29.
- 강성호, 김준영(2007).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지니계수 요인 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공공경제, 12(2). pp.89-118.
- 강성호, 임병인(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25(2).pp.55-85.
- 강성호, 김준영. (2007).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지니계수 요인 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공공경제, 12(2). 89-118.
-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6(3), pp.75-107.
- 강창호, 박창수(2009). 주거만족도가 베이비 부머의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2). pp.99-106.
-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 고정민(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SERI.
- 구인회, 임세희(2007).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악화의 요인분해-개인근로소득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가을호), pp.5-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

권현정, 박화옥(2009).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복지관점에서. *한국노년학*, 28(3). pp.535-553. ※연도숫자가 다름

권혜자(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김경아(2008). 국내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32(0). pp.79-107.

김경아, 강성호(2008). 우리나라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연구. *재정학연구*, 1(3). pp.21-52.

김기홍(2008). 중고령자 진로전화 지원 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기홍(2011). 베이비 부머세대의 진로전환인식실태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 제 6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pp.24-55. ※2010은 있는데 2011이 없음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김미령(2011).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51(0). pp.7-34.

김상철(2010). 베이비붐 세대의 역모기지 이용의사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호(2003). 공적연금자산과 가계저축의 대체효과: 독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 연구*, 51(4), pp.33-55.

김상호(2005). 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대체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경제학연구*, 53(4), pp.47-65.

김상호(2007).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5(3), pp.47-65.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란, 주재선(2010). 베이비붐 세대 남녀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용성(2005). 빈곤실태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용하, 임성은(2011). 베이비붐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pp.36-59.
- 김우성, 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pp.31-53.
- 김은정(2003). 베이비붐1세대, 1962-1969년 출생자세대, 20대의 세대간 및 세대별 가족이념 경향 분석.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욱(2002).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분석, 한국사회경제학회, 19(), pp.267-293.
- 김진욱, 정의철(2010). 도시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분석-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1), 33-60.
-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17(1), 115-146.
- 남상섭(2005). 1990년대 후반기소득분배변화요인분석. 경제연구, 23(3), pp.27-53.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여가백서.
- 박경숙(2001). 노년기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pp.141-168.
- 박길성, 함인희, 조대엽(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집문당, 아산재단연구총서, 192집.
- 박성준(2000). 금융위기이후 소득불균등에대한 연구. 노동경제론집, 23(2), pp.61-80.
- 박시내, 심규호(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2010상반기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 박찬용, 강석훈, 김태원(2002).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10). 한국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이성균, 우석진, 김기현, 김지경(2011).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변화와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신동균, 김동현, 신현구(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09). 한국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 (work life)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백은영(2011). 베이비 부머의 은퇴준비와 준비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pp.357-383.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Metlife Mature Institute(2011).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

서울사이버대학교(2009). CSA1급 과정 개발·운영 제안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재은,이기주(2010).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특성별유형화와다층노후소득보장전략.한국사회보장학회추계정기합술대회자료집,2010(2).pp.25-74.

선우덕(2011).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의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1(4).

선우덕, 김동진, 송양민, 김나영, 이윤경, 유혜영(201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0).

성명재(2001). 소득분배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김종면(2004).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능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손경환 (2011),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손병돈(2009). 노인소득의 불평등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pp.1445-1461.

손유미, 김찬훈(2010).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신동균, 이정우, 방하남, 안종범, 강석훈(2009), 한국 근로자들의 은퇴경로 분석: 점진적 은퇴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신연희, 한경혜, 김호, 김병후, 김혜영, 박경숙(2010).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국신(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1(0), pp.53-76.

안국신, 박완규, 유항근(1995). 우리나라계층별소득분배의결정요인분석, *계량경제학보*, 6(0), pp.57-86.

우석진(2010a).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 30(2), pp.499-513.

우석진(2010b). 한국 대졸 실업의 장기화와 세대간 이전, mimeo.

원종욱(1999).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가 직역간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노동경제논집*, 22(2), pp.229-242.

유경준(1998).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변화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WorkingPaper.

유경준, 김대일(2002). 외환 위기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윤소영,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윤소영, 윤주, 박수정, 오세숙, 조아미, 지현진(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이미진(2002). 인구특성별 삶의 질 비교 노인복지정책연구, 11(0). pp.115-186.

이만우 · 김진영 · 김대철(2007). “국민연금기대자산과 가계저축-전체 가계저축 및 소득계층별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2007년 추계정기학술대회, 재정학회.

이미진, 김미혜, 홍백의(2007). 남성고령자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1). pp.1-26.

이삼식 외(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외(201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자원 수요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특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p.2063.

이소정, 정경희, 손병돈, 이미숙, 홍백의, 이은진(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이소정, 정경희, 김경래, 이은진, 강인, 이금룡외(2010). 노후 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유삼현, 한정란(2008). 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렬, 최강식(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3(4), pp.83-103.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물과학회지, 16(3), 547-562.

이장영, 김문겸, 김민규, 박근수, 류승호, 강효민,외(2004). 여가. 일신사.

이정수.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 2010

이정우, 이성림(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pp.79-109.

이지영(2011). 베이비 부머 가계 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철선(2009).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임경묵, 문형표(2003),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최경수와 편, 한국개발연구원.

임병인, 전승훈(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장윤정(2001). X세대의 라이프스타일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지연, 신현구(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2011). 고용안전망과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전승훈, 임병인(2008),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보험개발연구

정경희(2010). 베이비 부머의 특성 및 복지욕구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pp.119.

정경희(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pp.5-10.

정경희, 남상호, 오영희, 이소정, 이윤경, 정홍원의 7(2011a).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2011b)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1-37-9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외(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0-30-18.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순돌, 구미정(2011). 우울영향요인: 베이비 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 복지연구, 52(0). pp.305-324.

정옥분(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정의신(2010). 한국의 국민연금과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전후세대의 은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정의철, 김진욱(2007).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pp.57-77.

정진호, 최강식(2001). 근로자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분해, 경제학 연구, 49(3), pp.39-64.

정호성, 강성원, 문외술, 박준, 손민중, 이찬영외(2010). 베이비붐세대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47), pp.72-80.

조현성, 김영범, 이주연(2004).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지은정(2011).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생애주기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pp.333-370.

채구목(2007). 소득불평등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한국

- 사회복지학, 59(1), pp.199-221.
- 최성철.(2008). 베이비붐세대가국민연금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원광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인영, 최혜경(2009). 한국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81-109.
- 최현수(2002).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22(3), pp.223-243.
- 통계청(2005),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 특성 변동 추이, 보도자료(2005년6월 22일, www.nso.go.kr)
-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2011년4월19일,www.nso.go.kr).
- 통계청(2011), 2010인구 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 요약, 보도자료(2011년5월31일, www.nso.go.kr).
- 한경혜,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일 대응방안, 2010 헬스케어심포지엄 /노인사회참여활성화 포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pp.149-171.
-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2011).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의 베이비 부머연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6). 노인생애경력조언자 양성교육 기본과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문화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 함재봉(2005). 소득불평등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7(). pp.173-199.
- 허은정, 김우성(2003). 베이비붐세대가계와 X세대가계의 소비지출 및 저축. 소비문화연구, 6(3), pp.79-97.
- Abel, Andrew(2001). "Will Bequests Attenuate the Predicted Meltdown in Stock Prices When Baby Boomers Reti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89-595.

Allyn & Bacon, 2005.

AoA(U.S. Administration on Aging)(2007). Strategic Action Plan 2007-2012.

Aquilino, W. & Supple, K.(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53), pp.13-27.

Arnold, Suzanne(2005). Ready or Not, Your Retirement Planning Guide(32th edition), *Manpower Education Institute*.

Bammel. G. & Burrus-Bammel, L. L., Leisure & human behavior,

Bass, Sott A.(2000). "Emergence of the Third Age: Toward a Productive Aging Societ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1(2), pp.7-18.

Benitez-Silva, H.(2000). "Micro Determinants of Labor Force Status Among Older Americans," mimeo.

Bernheim, Douglas(1998). "Financial Illiteracy, Education and Retirement Saving," In Living with Defined Contribution Pensions, eds. Olivia Mitchell and Sylvester Schiebe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ohn, Henning(2001). "Social Security and Demographic Uncertainty: The Risk Sharing Properties of Alternative Policies," in J. Y. Campbell and M. Feldstein, eds., Risk aspects of investment-based Social Security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03-241

Bouvier, L. F. & De Vita, C. J.(1991). The Baby Boom-Entering Midlife. *Population Bulletin* 46(3). 2-35.

Brody, E. M., Johnsen, P. T., & Fulcomer, M. C.(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Opinions and preferenc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9, pp.736-746.

Brody, E. M., Johnsen, P.T., Ful-comer, M. C. & Lang, A. M.(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8, pp.597-607.

- Brokaw, T.(1998). *The Greatest Generation*. Random House, New York.
- Brooks, Robin (2002). "Asset-Market Effects of the Baby Boom and Social-Security Refor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pp.402-406.
- Brown & Benchmark, 1996.
- Burtless, Gary(1999).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 pp.853-865.
- Business Wire(2006). Helicopter Parents: 25% of Parents are Overly Involved, Say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c. Polls College Students about Parental Involvement. All Business.
- Campbell, John (2006). "Household Finance," *AFA Presidential Address*
- Cancian, Maria & Deborah Reed. (1999). "The Impact of Wive's Earnings on Income Inequality: Issues and Estimates", *Demography*, 36(2), pp.173-184.
- Cancian, Maria, Sheldon Danzinger & Peter Gottschalk. (1993). "Working Wives and Income Inequality Among Married Couples"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ARP,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romoting Preventive Services for Adults 50-64: Community and Clinical Partnerships. Atlanta, GA: National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Directors; 2009.Available at www.cdc.gov/aging
- CollegeGard.com.(2008). College Graduates Moving Back Home in Larger Numbers. 2009. 7.22.
- CollegeParents of America(2006). Survey of Current College Parent Experiences:Overview of Results, 2006. 3. 30.
- Daly, Mary C. (2004). "Inequality and Poverty in United States: The effects

- of Rising Dispersion of Men's Earnings and Changing Family Behavior", *Economica*, 73, pp.75-98.
- Danzinger, Sheldon. (1980). "Do Working Wives Increase Family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0), pp.444-451.
- Easterlin, R.A., Schaeffer, C. M., & Macunovich, D. J.(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97-522.
- Elia Powers(2007). Involved Parents, Satisfied Students. Inside Higher Ed, 2007. 11.
- Freeman, Richard B. (1993). "How much has de-unionization contributed to the rise in male earnings inequality?"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 Gibson(1993). "The Four Baby Boomer", *American Demographics*, November 1993, pp.36-40.
- Gilford, R. (1986). Marriages in later life. *Generations*, 10, pp.16-20.
- Giordano, J. A.(1988). Parents of the Baby Boomers: A New Generation of Young-Old. *Family Relations*, 37(4), pp.411-414.
- Glick, P. C.(1979). The future marital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9(3), pp.301-309.
- Goodbey, J., *Leisure in your life: An exploration*,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2003.
- Gottschalk, Peter, "Inequality, Income Growth, and Mobility: The Basic Fac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2), pp.21-40.
- Gustman, Alan and T. Steinmeier (1999). "Effects of Pensions on Savings: Analysis with Data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50, pp.271-324

- Gustman, Alan and T. Steinmeier (2004), "What People Don't Know about their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In *Private Pensions and Public Policies*, eds. William Gale, John Shoven and Mark Warshawsk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p.57-125
- Harris M. The role of primary health care in preventing the onset of chronic diseas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ifestyle risk factors of obesity, tobacco and alcohol. Commissioned paper for National Preventative Health
- Hanson, S.a L., Sauer, W. J., & Seelbach, W. C.(1983). Racial and cohort variations in filial responsibility norms. *Gerontologist*, 23, pp.626-631.
- Hooyman N. R. & Kiyak, H. A.,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 Horrigan, Michael W. & Ronald B. Mincy. (1993). "The minimum wage and earnings and income inequality"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n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 Ingersoll-Dayton, B., Neal, M. B., & Hammer, L. B.(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3), pp.262-271.
- Iso-Ahola, S. E.,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Iowa: WM. C. Brown Company, 1980.
- Jayson S.(2007). Helicopter parents the topic of landmark study. *USA TODAY*, 2007. 4. 3.
- Juhn, Chinhui & Kevin M. Murphy. (1997). "Wage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pp.72-97.
- Karoly, Lynn A. & Gary Burtless, "Demographic Change, Rising Earning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ll-being, 1959-1989", *Demography*, 32(3), pp.379-405.

- Keister, L.A. & Deeb-Sossa N.(2001). Are Baby Boomers Richer than Their Parents?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Wealth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pp.569-579.
- Lancaster L. C. & Stillman, D. (2010). The M-Factor How the Millennial Generation is Rocking the Workplace, Hapercollins Publishers : New York.
- Lerman, Robert I. & Shlomo Yitzhaki.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pp.151-156.
- Levenson, R., Carstensen, L.,&Gottman, J. (1993). Long-term marriage: Age, gender, and satisfaction. *Psychology and Aging*8, pp.301-313.
- Logan, J. & Spitze, G.(1996).Familyties : Enduring relations between parents and their grown children. Temple University press.
- Lusardi, A. & Mitchell, O.S(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pp.205-224.
- Lusardi, Annamaria (1999). Information, Expectations, and Savings for Retirement, in *Behavioral Dimensions and Retirement Economics*, eds. Henry Aar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and Russel Sage Foundation*
- Lusardi, Annamaria (2003). "Planning and Saving for Retirement," working paper, *Dartmouth College*
- Lusardi, Annamaria and O. S. Mitchell (2006).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working paper,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ancini, J. A.,&Blieszner, R.(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Researcg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pp.275-290.

- Miller, D.A(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 26, pp.419-423.
- Mitchell, Olivia (1988). "Worker Knowledge of Pensions Provis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6, pp.28-29
- Mookherjee, Dilip & Anthony Shorrocks(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368), pp.888-902.
- Moore(2006). "Protected pension income: equality or disparity for the baby-boom cohort?", *Monthly Labor Review*, March2006, pp.58-67.
- Murphy, J., Concepts of Leisure, Prentice Hall Inc. 1975.
- Murphy, Kevin M. & Finis Welch. (1993). "Industrial Change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Skill"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Danziger, Sheldo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 Nevidjon, B.(2004). Managing From the Middle: Integrating Midlife Challenges of Children, Elder Parents, and Career.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8(1), 72-75.
- Orther, D.K(1981). *Intimate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the family*. Reading, MA: Addison-Wesley.
- Parker, S.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Service, 1976.
- Poterba, James (2001), "Demographic Structure and Asset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pp.565-584
- Randall, K.(2008). Mom Needs an 'A': Hovering, hyper-involved parents the topic of landmark study.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Riley, M.W., Kahn, R.L. & Foner, A.(Eds.),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New York: John Wiley, 1994.
- Roberts,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 University of Liverpool, 2006

- Ross, C., Mirowsky, J., & Goldstein, K. (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1029-1078.
- Seelbach, W.C.(1977). Gender differences in expectations for filial responsibility. *Gerontologist*, 17, pp.421-425.
- Seelbach, W.C.(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Family Coordinator*, 27, pp.341-350.
- Seelbach, W.C.(1981). Filial responsibility among aged parents: A racial comparison. *Journal of Minority Aging*, 5, pp.286-292.
- Seelbach, W.C.(1984). Filial responsibility and the care of aging family members. pp.92-109 in William H. Quinn and George A. Hughston (eds.), *Independent Aging: Family and Social System Perspectives*. Rockville, MD: Aspen.
- Seelbach, W.C., & Sauer, W.J.(1977).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morale among aged parents." *Gerontologist* 17. pp.492-499.
- Semple, S.(1992). Caring for aging parents: Dimensions and consequences. *Gerontologist* 32, pp.648-655.
- Troll, L. E. Miller, S. J., & Atchley, R. C.(1979). *Families in later life*. Belmont, CA: Wadsworth.
-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82, pp.8-14.
- Watterberg, E. (1986). The fate of baby boomers and their children. *Social Work* Jan.-Feb. 20-28.
- White, L. & Edwards, J. (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evidence from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p.235-242.
- Wyer K(2008). Most college freshmen like college parental involvement, survey

says. UCLA Today, Faculty and Staff News, 2008. 1. 24.

<참고 사이트>

강남구노인복지관 www.gnsenior.org

건강가정지원센터(2010). <http://www.familynet.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www.rigec.or.kr

대한노인회 www.koreapeople.c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2010). www.kauce.or.kr

강남구노인복지관 www.gnsenior.org



부록 1 포럼 위원 명단

	-